

# 202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국어 1차 답안 복기

2021. 11. 28. (시험 다음날) 스ㅎ스 작성

☆ 전공 점수(전공 A+B) : **70점 / 80점 (-10점)**

## ☆ 유의 사항

- 아래의 복기 내용은 시험 다음날 작성된 것이므로, 실제 제출한 답안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내용을 적었는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은 **파란색 글씨**로 표현해 놓았습니다.
- 감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**빨간색 글씨**로 표시해 두었습니다만, 사건일 뿐이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전공 A

1.

|   |       |
|---|-------|
| ㉠ | 의견    |
| ㉡ | 훔어 읽기 |

2.

|   |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|
| ㉠ | 합성 명사       |
| ㉡ | 용언 어간의 끝소리인 |

3.

|   |     |
|---|-----|
| ㉠ | 이를- |
| ㉡ | 이르- |

4.

|   |      |
|---|------|
| ㉠ | 한아버이 |
| ㉡ | 화강도  |

5.

|         |  |   |
|---------|--|---|
| 작성 방법 1 | (가)에 적용된 화법 교수·학습 방법은 '쓰기 워크숍'이다.  | <b>(-1) 확실히 틀렸음.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서 수용 가능한 화제인 '진로 탐색'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였으며, 학생들이 전체 면담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, 그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. | <b>(-1) 위에서 교수·학습 방법 자체를 틀렸기 때문에, 여기도 감점 예상됨.</b> |
| 작성 방법 2 | (나)의 ㉠에서 하위 활동의 단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, ㉠에는 일하고 싶은 분야나 직업군의 면담 대상자 목록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| (나)의 ㉡에서 질문을 만드는 활동에 대한 상위인지 활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, ㉡에는 작성한 질문이 진로 탐색의 목적에 맞는지 검토하는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♥ 복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하세요!

♡ 다만 무단 전재 및 복제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(스ㅎ스)

6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(가)의 <화산 지형> 글 전체에 나타난 '설명적 글의 구조 유형은 '수집 구조'이다.<br>(<화산 지형>의 글에서 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, 종류, 활용 양상을 언급한 것처럼) 수집 구조란 해당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내용을 나열한다는 특성이 있다. |
| 작성 방법 2 | (나)의 <종합 정리>에 전체적으로 활용된 '설명적 글의 구조 유형'은 '비교·대조 구조'이다.<br>비교·대조 구조의 장점은 비교·대조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,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다.      |

7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(가)의 평가의 중점에서 평가의 주체를 교사, 학생 자신, 친구들과로 다양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자기 평가가 빠져 있으므로, ㉠에는 '평가 기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글을 검토한다.'가 들어갈 수 있다.<br>쓰기 평가의 원리 중 '통합성의 원리'가 '고쳐쓰기' 단계에서 ㉠을 통해 구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친구들의 글을 피드백해 주면서 자신의 글의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을 알게 되므로 평가 과정이 곧 교수·학습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|
| 작성 방법 2 | (가)의 '교수·학습 및 평가 계획'에서는 쓰기 과정에서 모둠별 협의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.<br>㉠에는 쓰기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협의를 하고 글은 개별적으로 완성하는 것 또한 협동 작문이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.   |

8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(2)에서 부사어는 '눈이 부시도록'이다.<br>(3)에서 부사어는 '꿈처럼'이다.   |
| 작성 방법 2 | (2)의 '눈이 부시도록'은 주어인 '눈이'와 서술어인 '부시다'가 부사형 어미 '-도록'으로 이어진 부사절이다. (참고: 혹은 '~ 이어진 부사절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이다.'로 썼을 듯)<br>(3)의 '꿈처럼'은 명사 '꿈'에 부사격 조사 '처럼'이 결합한 것이다. (참고: 혹은 '~ '처럼'이 결합한 것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이다.'로 썼을 듯)<br>따라서 '부사어는 모두 부사이다.'라는 명제는 참이 될 수 없다. |

9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㉠은 '善友太子 +   + -오- + -다'로 이루어진 것이다.<br>㉡은 '사름 + 이 + -도- + -다'로 이루어진 것이다.   |
| 작성 방법 2 | ㉠의 선어말 어미를 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, ㉠이 포함된 문장의 의 주어가 '나'라는 1인칭의 종결형이기 때문이다. <b>답안에 '~ 종결형이기 때문에 '-오-'가 쓰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.'까지 언급되어야 했다면 감점 예상됨.</b><br>둘째, 서술격 조사 '이' 뒤에서 선어말 어미 '-오-'는 '-로-'로 교체되기 때문이다.<br>셋째, 선어말 어미 '-오-' 뒤에서 종결 어미 '-다'는 '-라'로 교체되기 때문이다. |

10.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작성 방법 1 | 대비되는 시적 공간은 '복관'과 '평안도 정주'이다.<br>'복관'은 화자가 혼자 앓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독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. 반면 '평안도 정주'는 화자의 고향으로 화자에게 따뜻함과 애뜻함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.  |
| 작성 방법 2 | 화자와 '의원'의 정서적 교감을 일으키는 방식은 첫째로 화자와 '의원'이 <b>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인 '아무개씨'</b>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언어적 소통의 방식이다.<br>둘째로 의원이 '맥을 보는데' 그 손길에 '따스하고 부드러웠다'는 것에서 알 수 있다. 이는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정서적 교감이 일어난 것이다. |

11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(나)의 ㉔가 드러나는 대상은 (가)에서 새장 속에 갇혀 있는 '새'들이다.   |
|         | ㉔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장 속에 구속되어 있는 새들과,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방생시키는 것이다. 이는 작가가 권력과 장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나타낸 것이다.<br>(참고: '우의적'이 들어가게끔 문장을 만들어 냈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음) |
| 작성 방법 2 | (나)의 관점에서 ㉔은 새를 가두었다가 다시 풀어 주며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므로, '새'라는 존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자이자 폭력자를 상징한다.   |
|         | (나)의 관점에서 ㉔은 새를 사냥하는 방법을 의미하므로, ㉔의 권력자가 해방된 존재를 다시 구속되게 만드는 수단이자 권력의 유지 방식을 상징한다.  |

12.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작성 방법 1 | ㉔과 같이 말한 근거는 첫째, 정수정이 "규중의 연약한 여자로서 기특한 생각을 내어 가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.   |
|         | 둘째, "원수를 갚으려 만 리 전쟁터의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큰 공을 세"웠기 때문이다. <b>답안에 음양을 바꾸는, "정체가 드러나니"와 같은 맥락이 들어가야 정답이라면 감점 예상됨.</b> |
| 작성 방법 2 | [B]는 정수정이 남편인 장연을 엄중하게 문책하는 장면이다. 이때 ㉔에 대해 ㉔은 정복대원수와 중군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보다 부부 사이라는 개인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관점을 보여 준다.      |
|         | 반면 ㉔에 대해 ㉔은 전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하는 관점을 보여 준다.  |

## 전공 B

1.

|   |     |
|---|-----|
| ㉠ | 수행적 |
| ㉡ | 개념  |

2.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㉠ | 만전춘별사                 | (-1) 확실히 틀렸음.<br>정답은 <서경별곡>이라고 함. |
| ㉡ | 님 향흔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3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㉠에는 '관련되는 공신력 요소는 능력이다. 그 이유는 강연자가 강연 내용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.'가 들어갈 수 있다.  |
|         | ㉡에는 '관련되는 공신력 요소는 진실성이다. 그 이유는 자신도 글쓰기가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진정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.'가 들어갈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작성 방법 2 | 학습 활동 3의 의미는 첫째, 3의 (1)에서 강연을 듣고 난 후에 느낀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을 정리해 보게 함으로써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에 의해 지각되고 판단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.      |
|         | 둘째, 3의 (2)에서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이 '강연 전'과 '강연 후'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판단해 보도록 함으로써 담화 이전에 형성된 공신력과 이후의 공신력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|

4.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작성 방법 1 | (나)의 [A]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은 '관찰법'이다.  |
|         | '관찰법'은 교사가 학생의 독서 과정을 관찰함으로써, 독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인지적·정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.             |
| 작성 방법 2 | (다)의 2번 문항에서 학생이 글의 화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므로, 학생에게 글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.             |
|         | (다)의 3번 문항에서 학생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므로, 학생에게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. |

5.

|         |  |   |
|---------|--|---|
| 작성 방법 1 | (1)에 적용된 음운 변동들은 'ㄴ' 첨가가 일어난 다음 유음화가 진행되는 적용 순서를 보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| 왜냐하면 'ㄴ'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'ㄹ-ㄴ'이 연속되는 유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유음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. | 답안에 "/ㄴ/→ㄹ/"의 음운 변동과 같이 적어 주었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감점 예상됨.    |
| 작성 방법 2 | (2)에 적용된 음운 변동들은 'ㄹ'의 비음화가 일어난 다음 비음화가 진행되는 적용 순서를 보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| 왜냐하면 'ㄹ'의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음화의 동화주인 비음이 존재하지 않아 비음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.           | 여기서도 답안에 구체적인 음운 변동 양상을 같이 적어 주었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감점 예상됨. |

6.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작성 방법 1 | (1)에서 안긴문장의 서술어는 '노니는'과 '풀어짐'이다.                  |
| 작성 방법 2 | (1)의 선행절은 접속 이전에 '영수가 어항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보았다.'의 문장이었다. |
|         | (1)의 후행절은 접속 이전에 '영수가 긴장이 풀어짐을 느꼈다.'의 문장이었다.      |

7.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작성 방법 1 | (가)의 ㉠, ㉡ 중 ㉠을 가진 '빔'은 ㉠이다.   |
|         | 이때 '빔'은 '가격'의 의미를 지닌다.  |
| 작성 방법 2 | (나)의 ㉢, ㉣ 중 ㉣의 의미를 가진 '똥다'는 ㉣이다.  |
|         |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㉣에서 저렴하다는 의미의 '디다'와 함께 사용되어 '비싸던가 저렴하던가'와 같은 선택의문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. |

8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㉞가 나타나는 시행은 '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'이다.  |
|         | 시적 공간인 '대합실'은 '툽밥난로'가 지퍼지고 있어 ㉞는 (마냥 어둡거나 암울하지 않고) 따뜻하고 온정적이다.   |
| 작성 방법 2 | ㉠에서 시적 화자 '나'의 '눈물'을 흘리게 하는 대상은 대합실에 모여 있는 서민들이므로, ㉠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함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 |
|         | ㉡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시적 화자의 '눈물'을 흘리게 하는 대상은 죽은 '애기'이므로, 떠나간 '애기'를 그리워하는 부모의 슬픔과 한탄을 함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      |

9.

|         |  |   |
|---------|--|---|
| 작성 방법 1 | ㉢에서 안초시는 드팀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였고 장전을 내었다가도 화재를 보는 등 사업의 실패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| 그 결과로 ㉢에서 안초시는 추석 때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빈곤한 처지임을 알 수 있으며, ㉢의 '전장'과 '흥'에서 알 수 있듯이 자조적인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다. |   |
| 작성 방법 2 | (나)의 ㉞에 들어갈 내용은 "이놈의 엄지손가락아, 안으로 좀 들어가아, 전장."이다.   | 합격 후기 보니 의견 분분한 듯. 감점 가능성 있음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㉞에는 (돈이 불어나는 상상을 하는 모습을 통해) 일확천금을 노리는 안초시의 허황된 태도를 알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㉞에 들어갈 내용과 이어지게 적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다면, 위에서든 여기에서든 감점되었을 듯. |

10.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작성 방법 1 | (가)에서 화자의 미래에 대한 삶의 지향을 드러낸 말은 '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흐리랴'이다. 이는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할 것임을 의미한다.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(나)에서 화자의 미래에 대한 삶의 지향을 드러낸 말은 '빈천거를 흐오리랴'이다. 이는 (관직에 나아가지 않고) 자연 속에 묻혀 살며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이다. |
| 작성 방법 2 | (나)의 화자가 안빈낙도의 삶의 지향을 확립하기까지 고뇌의 과정을 알려 주는 시어는 '부귀위기'이다.   |
|         | '부귀위기'는 입신양명의 삶을 살게 될 경우 당파 싸움이나 정적과 같이 동반되는 위험의 요소가 많음을 의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1.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작성 방법 1 | (가)와 (나)를 대비하여 볼 때 확인되는 이야기 구조는 첫째, 제비 황제(황제 제비)가 각처의 제비를 점고하는 구조이다.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이는 (가)에서 제비 황제가 흥부의 은혜를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, (나)에서는 놀부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.          |
| 작성 방법 2 | 둘째, 제비가 돌아오는 귀환의 이야기 구조이다.  |
|         | 이는 (가)에서 제비가 '보은표'라 쓰인 박 씨를 흥부에게 주는 것으로, (나)에서 제비가 '보수표'라 쓰인 박 씨를 놀부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. |